

150508\_ 미류의 '416인권선언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글 및 몇 가지 고민'에 대한  
답장

미류, 메일 확인했습니다.

고민이 많네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새로운 길을 가는 길에 동지가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5월 9일 회의가, 그동안 416인권선언의 추진 개요를 설명하고

앞으로 간담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합니  
다.

추진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 간담회 조직 + 2. 간담회 진행 + 3.간담회 속기록 전달

그리고 진행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실행팀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지 터놓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콘텐츠를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고요. ^^

내용을 사전에 안고 시작해야한다는 생각을 성안팀 중심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추진단과, 추진단이 진행할 간담회 안에 세월호 참사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따라서 추진위원이 간담회를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합니  
다.

그리고

5월 7일 회의 이후 제가 고민하는 것은,

1. 실행팀+알파가 추진위원들의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있어서 좀 더 품을 많

이 들어서 계속 결합해야할 것 같다는 고민입니다.

304인의 추진위원과 이후 추가로 결합하는 시민 위원은 가능한한 간담회 조직과 진행을 모두 감당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조직'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은 소통하면서 실행팀 및 '토론 기획팀+알파'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추진위원이 모두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취합해야하는 팀은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2. 416 선언 제정 과정을 공유하는 소통팀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현재 실행팀이 추진위원들에게 '제안'하여 함께하자고 하는 형식인데,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진 선배가 회의자리에서 얘기하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소통팀(?)이 해야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진행되는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소통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행팀 내부에서 소통팀(?)구성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답니다.

힘차게 앞으로 가요 미류!

최재민 드림